

# 공공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Serial Management of Public Libraries

김 혜 진 (Hyejin Kim)\*\*

차 미 경 (Mikyeong Cha)\*\*\*

### 초 록

연속간행물이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이용 빈도에 비하여 공공도서관현장에서의 연속간행물 관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국내 8개 지역 대표도서관 및 3개 해외 도서관의 장서관리 정책 사례 조사, 경기도 지역 3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독 종수 및 범위의 확대, 접근점 개선 및 관리지침의 수립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Despite the importance and uses of serials in public libraries, the present condition of serial management is still behi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proposes the ways of improving serials management. For the purposes,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case study of collection management policies of 8 regional central libraries and 3 public libraries abroad, and online questionnaire survey of 31 public libraries in Gyeong-gi province. Based on the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s the need for extending the number and scope of serials subscriptions, improving access points and establishing management guidelines.

키워드: 연속간행물, 공공도서관, 정기간행물, 연속간행물관리, 장서관리

Serials, Public Libraries, Periodicals, Serial Management, Collection Management

---

\* 이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축약·보완한 것임.

\*\* 평택시 팽성도서관 사서(hjk1209@pyeongtaek.go.kr)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ha@ewha.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7년 6월 7일 논문심사일자 : 2017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자 : 2017년 6월 1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2): 245-271, 2017.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2.245>]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속간행물은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판물로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최신의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도서관의 중요한 정보원이다. 특히 현대에는 상업적으로 출판되는 간행물 이외에 학술지, 사내보 등 대량의 잡지가 발행되어 도서관자료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2010).

공공도서관은 다른 관종과 비교하였을 때 연령, 가치관, 흥미 등이 매우 상이한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료에 대한 요구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정 주제 분야의 연구 성과를 담고 있는 학술잡지 및 전문잡지부터 취미·생활정보를 담은 교양지, 정부 각 관청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까지 포함하는 연속간행물은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공공도서관 현장에서도 연속간행물은 단행본 다음으로 많은 이용률을 보이는 자료이며, 많은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 다양한 형태의 연속간행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장덕현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독보적인 종합자료실 이용 다음 2순위로 연속간행물실의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이용자 혜택을 측정한 표순희(2014)의 연구에서도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24.5%의 이용자들이 자료실에서 신문이나 잡지를 열람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연속간행물이 공공도서관장서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연속간행물의 장서관리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다. 서혜란 외(2008)의 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60.2%)의 공공도서관에 별도의 연속간행물실이 없었다. 또한 2013년에는 단지 27.3%의 공공도서관만이 연속간행물 관련 장서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배경재 외 2013). 여기에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연속간행물 구독 비용이 공공도서관 예산 항목에서 도서구입비와 별도의 항목(예, 일반운영비의 하위 항목인 사무관리비)으로 설정되는 등의 환경은 체계적인 장서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한다.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서도 인쇄 연속간행물 구독 종수, 예산 규모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관련 지침 및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공공도서관 현장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 1.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 분석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가 사용되었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연속간행물 장서관리와 관련한 기준을 정리하고, 국내외 공공도서관 12개관을 대상으로 장서구성계획, 정기간행물 수집계획 등 다양한 형태의 장서관리 정책 관련 문서를 분석하였다. 이외에 연속간행물의 장서 현황, 배가와 열람에 관한 내용은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현황, 연속간행물의 소장위치, 이용방법 등을 참고하였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조사는 지역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11개 지역대표도서관에 연속간행물 장서관리에 관한 정책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이 가운데 9개관이 장서관리 정책문 또는 관련사항에 대한 응답 내용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하였다. 이 가운데 응답 내용이 미흡한 1개관을 제외하고 8개 도서관을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서혜란 외(2008)의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실태조사 및 기본장서목록 연구』에서 우수한 장서관리정책의 사례로 다루어진 국외 13개관의 장서관리정책 중에서 온라인에서 장서관리정책 전문을 공개하여 확인할 수 있고, 연속간행물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보스턴 공공도서관(Boston Public Library),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San Francisco Public Library), 로체스터 공공도서관(Rochester Public Library) 3개관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둘째,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장서관리 현황을 알아보았다. 경기도 소재 일반 공공도서관 중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최소한의 연속간행물 소장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50종 이상을 소장한 31개 공공도서관으로부터 2016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2009)와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실태조사 및 기본장서목록 연구』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2016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사서 3명을 대상으로 이들

간의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내용은 일반 현황 및 응답자의 배경, 연속간행물의 선정과 입수, 배가와 열람, 보존 및 폐기, 장서관리 개선 및 요구사항의 5부문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에 1개관도 포함되지 않은 1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소속 공공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1년 11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 통지받아 현황조사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 1.3 선행연구

공공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주로 공공도서관의 장서관리 및 관리, 서비스에 관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윤희운(2009)은 공공도서관이 도서와 대중잡지 중심의 아날로그 장서관리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정보자원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여 지식정보 거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료 잡지, 오픈 액세스 잡지, 잡지의 논문파일 등은 공공도서관이 적극 개발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제로상태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지연(2009)은 포괄적인 장서관리 업무의 현황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 전국도서관운영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별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서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체계적인 장서관리 지침이 마련된 곳이 없었으며, 폐기 및 제적처리 지침, 연체 및 분실도서, 미납도서의 처리 지침 등 세부적인 지침은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중

에서도 매체별 자료관리 지침이 있는 공공도서관 중앙관은 1곳에 불과하였다. 또한 조사의 대상이 된 공공도서관 분관 3곳 모두 연속간행물의 선정에 있어서 이용자 희망을 최우선하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윤희(2011)는 서울특별시 구립 공공도서관 5개관을 대상으로 장서 폐기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3000㎡ 이하 중규모 도서관들은 신간 자료의 서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존가치에 대한 검토 없이 이용률이 저조한 장서를 폐기 처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도서관에서 1년이 경과한 연속간행물을 폐기 대상 자료로 하는 포괄적인 장서 폐기 지침 또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진경 등(2011)은 서울특별시 구립 공공도서관 10개관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장서이용행태를 파악하여 장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사에서는 여성잡지, 국내신문, 취미잡지에 대한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였으며,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 연속간행물, 여성잡지, 국내신문, 해외신문, 남성잡지, 교양잡지 등의 자료를 높은 빈도로 응답하여 이용자들은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연속간행물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덕현 등(2012)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압도적인 종합자료실 이용 다음 2순위로 연속간행물실의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서 자료의 최신성과 신간자료 입수의 속도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략적인 연속간행물 소장 사항을 파악하였다.

## 2. 연속간행물의 범위 및 소장 현황

### 2.1 연속간행물의 범위

연속간행물을 분류하는 방법은 그 명칭만 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연속간행물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간기, 발행처, 수록 정보, 매체형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이 혼합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먼저 문헌정보학용어사전(2010)에서는 연속간행물의 유형으로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나 회보, 각종 연보, 연감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광의로는 발행처총서를 포함하기도 하고, 또 중간이 예정된 총서라도 전권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구입이 완결될 때까지는 연속간행물로 취급된다고 설명한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연속간행물 유형을 살펴보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기간행물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신문, 인터넷신문 등으로 구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연속간행물은 2015년 기준 18,712종으로 2011년에 비하여 5,444종이 증가하였다(〈표 1〉 참조). 이 수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학습자료, 상업광고를

〈표 1〉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연속간행물 현황 (2011년-2015년)

구분	일간 신문	통신	기타 일간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년 2회	인터넷 신문	계
2011	352	12	336	2,891	4,209	584	1,266	425	3,193	13,268
2012	324	14	369	3,014	4,512	611	1,354	451	3,914	14,563
2013	363	15	353	3,138	4,697	646	1,408	506	4,916	16,042
2014	374	18	360	3,289	4,905	665	1,495	551	5,950	17,607
2015	383	20	378	3,427	5,046	697	1,564	592	6,605	18,712

60% 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은 등록에서 제외되므로 정기간행물, 사보, 학술지 등은 제외된 수치이다. 기존 인쇄 잡지들의 성장이 비교적 정체된 반면, 2012년 이후 인터넷 신문은 매년 약 500~1,000종 이상 신규 등록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2 공공도서관 연속간행물 소장 현황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공립 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을 갖추어야 하며, 봉사대상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연속간행물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도서관기준』(2013)에서도 공공도서관의 바람직한 연속간행물 장서구성 기준을 “기본 50종에 서비스 대상인구 1,000명당 3종 이상 추가”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분관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또한 “지역주민이 최신 지식정보를 신속하게 이용에 필요한 각종 연속간행물의 수집비율을 높이고 접근·이용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소장 현황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14.12.31.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현황표』를 통해 분석

하였다. 인쇄 형태의 연속간행물 소장 종수는 최소값 0종부터 3,233종까지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으며 중앙값은 63, 평균은 139.8로 나타났다. 단 1종의 연속간행물도 소장하지 않는 도서관은 전체 930개관 중 26개관(2.8%)이었으며, 기본 소장 종수인 50종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서관도 399개관(42.9%)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국내 연속간행물을 위주로 보유하고 있으며 국외 연속간행물을 1종 이상 구독하는 도서관은 316개관(34%)이었다.

지난 1년간 소장종수의 증가도 많지 않아, 382개관(41.1%)은 1종도 증가하지 않았다. 특히 기증을 통한 증가는 636개관(68.4%)에서 1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의 경우, 연간 제작 종수가 0종인 도서관이 781개관(84%)이며, 메타데이터 구축 건수도 736개관(79.1%)이 0건으로 나타났다. 연속간행물 구입비를 보면, 대부분의 도서관(79.4%)에서 자료구입 예산의 70% 이상을 도서관구입에 사용하였으며 연속간행물 구입비율이 10~15%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202개관(21.7%)에 불과하였다. 또한 연속간행물 구입 비율이 16%를 초과한 도서관은 190개관(20.4%), 4% 미만인 도서관은 132개관(14.2%)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전국단위의 조사는 아니지만 2010년, 2011년의 조사와 위 결과를 비교하면 연속간행물 소장 종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 장서관리매뉴얼』(2010)에서 제시한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우수 공공도서관 중앙관 28개관의 통계자료를 보면, 연속간행물 소장 종수의 평균은 346종이었으며, 분포는 29종~1,153종으로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국외 연속간행물은 5개관이 소장하고 있었으나 정독도서관이 121종을 구독하는 반면, 나머지 도서관은 그 종수가 미미하였다. 이 밖에 장덕현 등(2012)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종수 합계는 2,117종으로, 도서관 1관당 평균 76종의 연속간행물을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정책 사례

#### 3.1 지역대표도서관 장서관리 정책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에 의거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특히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등을 업무로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연속간행물 장서관리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 3.1.1 서울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은 2009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반을 구성한 이후 2012년 10월 개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서울도서관 장서관리 및 수집계획』을 참고하였다. 서울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서울도서관에서는 연속간행물의 일반적인 선정기준뿐만 아니라 이를 유형별 및 소장위치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자료선정의 우선순위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도서관은 특히 이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어린이 잡지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으며 장서관리 구성 비율도 전체 연속간행물의 5% 이내로 언급되어 있다. 네이버 잡지 등 무료 웹 저널을 장서로 수집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홈페이지에서는 연속간행물의 잡지명, 저자, 출판사, 수록매체 등을 통해 상세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나다리스트를 통해 브라우징 검색이 가능하다. '전자도서관' 메뉴에서는 웹DB, 전자원문, 서울시보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울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서울지식정보' 메뉴를 통해 서울시의 각 실국본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의 원문DB를 제공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간물은 주요 기증 대상에 포함되며 신문, 시사/교양잡지, 사보 등 소장가치가 낮은 연속간행물은 기증 제한 자료로 명시하고 있으나 열람에 제공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폐기할 자료의 경우 수증할 수 있다.

#### 3.1.2 부산광역시립시립민도서관

부산광역시립시립민도서관은 1989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다. 2016년 8월말 기준으

〈표 2〉 서울도서관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

업무	항목	내용	
현황	장서현황	533종(국내 463종, 국외 65종, 학술DB 5종)(2016. 10. 기준)	
선정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양 또는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주제 분야 별 이용자의 구독경향 고려하여 선정</li> <li>• 이미 구독중인 간행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선정</li> <li>• 생활, 평생교육 관련 자료 우선 선정</li> <li>• 영어권과 일어, 중국어권 등 주변국 인문·사회계 학술지 우선 선정</li> <li>• 서지적 참고도구로서의 자료</li> <li>• 시대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창간된 잡지</li> <li>• 집필진과 편집진의 권위가 있는 잡지</li> <li>• 서울시 직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잡지나 학술지</li> </ul>	
	자료유형 및 자료실별 선정기준	행정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중앙정부, 기타 자치단체 간행물 모두 수집</li> <li>• 서울시 행정과정에서 생산되는 공공정보(행정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간행물 우선 수집</li> <li>• 서울시 각 자치구 발행 간행물 모두 수집</li> <li>• 서울시 이외 지방자치단체 행정간행물이라도 서울시와 관련 있는 경우</li> </ul>
		온라인 전자자료 (Web 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률이 높고 인지도가 있는 DB</li> <li>• 전문성과 신뢰성이 우수한 DB</li> <li>• 양질의 고급정보 등으로 시민의 지식격차 해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유용한 DB</li> </ul>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교양, 과학, 독서교육으로 내용 구성</li> <li>• 어린이 잡지의 비중은 전체 연간물의 5% 이하</li> </ul>
		장애인 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관련 큰 글자</li> <li>• 접지형태의 간행물 선정</li> </ul>
		세계 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권/일본/중국 등 주변국의 인문사회 학술지</li> <li>• 서울시정 행정업무에 참고가 되는 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제, 사회 등 주제의 외국 전문 학술지 선정</li> </ul>
		디지털 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사, 인문, 취미, 여행, 예술, 어학 관련 매거진 등 국내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잡지와 참고적 성격의 자료 선정</li> </ul>
		서울 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관련 자료 모두 수집</li> <li>•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연속성 있게 수집</li> </ul>
		웹 매거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잡지와 별도로 웹공간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잡지</li> <li>•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의 Crossroad, Edge재단의 edge 등</li> <li>• 네이버 잡지 등 무료 웹 저널 등 제공</li> </ul>
	배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매거진을 통해 접근 가능한 사업적인 잡지</li> <li>• 게임이나 만화관련 잡지, 기타 서울도서관 장서구성 배제원칙 따름</li> </ul>	
희망	정기간행물 제외		
입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간물은 주요 기준 대상</li> <li>• 신문, 시사/교양잡지, 사보 등 소장 가치가 낮은 연속간행물은 기준 제한</li> </ul>	
이용	온라인	해당 연속간행물 링크 제공	

로 연속간행물실에 46,980점의 신문, 잡지, 학술지, 보고서, 논문 등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나 유형별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제정되어 2014년 2월에 개정된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장서관리규정』과 『2016년 장서확충 계획(안)』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정리

하면 〈표 3〉과 같다.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은 홈페이지의 자료실안 내)연속간행물실 페이지에서 열람제한을 포함하여 자료이용에 관한 사항과 현행 소장중인 신문목록, 잡지목록, 연속간행물 관련 사이트 목록 및 링크를 제공한다.

〈표 3〉 부산광역시립시립도서관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

업무	항목	내용
현황	장서현황	연속간행물실 46,501점(전체 장서의 6.6%)
선정	이용통계	연속간행물실 525,565점(전체 이용의 12.7%)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양· 시사부문 잡지와 학술지는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li> <li>• 신문자료는 국내외 주요 신문 및 지역의 지방지를 적정 배분하여 구독</li> <li>• 연간 구독하는 연속간행물은 자료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li> </ul>
	배제기준	50쪽 미만의 소책자, 팸플릿, 리플릿, 문고
	희망	연속간행물 제외
입수	기증	연구보고서, 시보, 논문집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지닌 자료 미등록
이용	소장위치	연속간행물실
	열람제한	제본잡지/신문 및 마이크로필름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없음
	대출	대출 불가
폐기	폐기기준	보존기간이 지정된 잡지, 연보, 통계자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한 자료

3.1.3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은 2011년에 대구광역시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2015년 6월 마련된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중장기장서개발계획(2015~2018)』을 근거로 한다.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

업무	항목	내용	
현황	장서현황	54,035점(2016. 9. 1. 기준)	
선정	선정도구	온라인 서점 웹사이트	
	선정기준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도서관의 간행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교양 및 전문성의 안배</li> <li>•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간행물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정된 구입 예산의 안배에 노력</li> <li>• 전년도 11월 경 열람봉사와(각 자료실)의 희망간행물 구독의뢰 요청과 연중 간행물 이용률을 참고하여 선정</li> </ul>
		신문	국내 주요 신문 및 지역의 지방지를 배분하여 선정
입수	구입방법	연간구입계약	
	납품 및 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 매일</li> <li>• 간행물: 발행주기에 따라 처리</li> </ul>	
	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속간행물 중 창간호 및 도서관 소장자료 중 결호</li> <li>• 정부, 정부투자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li> <li>• 학회지· 학술대회발표· 학위논문집, 학술세미나, 워크숍 자료, 보고서</li> </ul>	
	수증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간호 및 도서관 소장자료 중 결호 이외의 연속간행물</li> <li>• 낱장자료, 묶음자료, 소책자(팸플릿), 홍보자료 중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li> </ul>	
이용	소장위치	논문· 정기간행물실	
	배가방법	일반 논문집: 발행처별 가나다 순	
	열람제한	제본자료: 반개가제	
보존 및 폐기	보존	당해연도 열람 후, 보존서고 수장 여건을 고려하여 1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적	보존기간이 지정된 잡지, 연보, 통계자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한 자료	



3.1.4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은 2008년 4월 인천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12월 준공하였으며 2009년 6월에 개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0월에 마련된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장서관리정책(안)』과 『2016년도 미추홀도서관 장서확충 계획』, 2016년 6월 일부 개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자료실 이용규정』, 『2017년 연속간행물 잡지 구입안내』를 참고하였다. 미추홀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미추홀도서관은 장서확충계획, 장서관리정책,

자료실 이용규정, 잡지 구입안내 등 다양한 지침의 형태로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016년도 미추홀도서관 장서확충 계획』에서는 웹컨텐츠 학술DB(DBpia) 이용 통계를 수록하고 있는데, 1종의 학술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월평균 357건의 검색 수와 168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

기증자료 중 사보, 교지 등 홍보성 자료 및 낱장자료도 등록하지 않는다. 또한 도서관법 제4장 제26조에 의거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관할 지역 내에서 생산된 행정간행물, 연속간행물을 납본하고 있으며 명부, 전화번호부 등의 참고자

<표 5> 미추홀도서관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

업무	항목	내용	
현황	장서현황	256종(신문 28종, 잡지 237종 / 분권포함 - 445종)(2016. 10. 기준)	
	이용통계	학술DB 검색 수/다운로드 수	
선정	장서구성기준	한국도서관기준 봉사대상 인구 산출식 적용 시	
	선정기준	일반	• 교양· 시사부문 잡지와 학술지는 분야별 권위와 구독 경향을 고려하여 선정(생활, 평생교육 관련 우선 선정) • 연속성을 고려하여 선정
		신문	• 국내외 주요 신문 및 지역 지방지 적절 배분
	선정주체	자료선정위원회 심의	
	희망도서	정기간행물 제외	
	선정도구	• 서점에서 시판중인 잡지 중 선호도가 높은 잡지(현장출장) • 주요 인터넷 서점의 신간잡지 및 추천 잡지 • 이용자 희망 잡지 및 신문(연속간행물 설문조사)	
입수	입수방법	연간입찰계약	
	기증	•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지닌 자료 미등록 • 사보, 교지 등 홍보성 자료 및 낱장자료 미등록	
이용	소장위치	참고/연속간행물실(이용시간, 이용대상) 등	
	대출여부	대출 불가	
보존 및 폐기	제본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및 인천지역 향토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는 제본대상	
	납본	행정간행물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작성한 연구 및 용역보고서 • 지역도서관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 및 용역보고서 • 국가기록원의 공공기록물 등록절차를 거친 연구보고서
		연속간행물	• 인천시 행정 및 정책관련자료 • 향토연구지, 지방지, 중앙지의 지방판
	폐기	구독간행물의 경우 보존기한 1년이며 1년 경과 후 폐기	

료도 납본의 대상으로 한다.

미추홀도서관은 별도의 참고/연속간행물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시간과 대상을 포함한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제8조에는 연속간행물(신문, 잡지)의 경우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 잡지 및 신문 등 구독간행물의 보존기한은 1년이며, 보존기한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고 폐기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2017 연속간행물 잡지 구입안내』를 통해서도 연속간행물 구독 예산, 이용자의 요구, 구입방식, 연속간행물선정 시 참고하는 선정도구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홈페이지에서는 자료찾기>연속간행물목록에서 신문과 잡지의 간행물명, 출판사, 간기, 소장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 3.1.5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은 2007년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실에 신문 70종, 잡지 536종, 관보, 공보 등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1908년 발행된 『소년』의 창간호 등 3,628부의 창간호 잡지도 포함된다. 2016년 기준 신문 36종, 잡지 274종 전체 310종의 구입하고 있다. 구입 외의 기증 연속간행물도 2015년 기준 신문 22종, 잡지 210종이 있다. 『2016년 정기간행물 수집계획(안)』과 『2015년 정기간행물자료 폐기계획(안)』 그리고 2010년 4월 제정된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정기간행물 보존 및 불용처리규정』등에서 연속간행물 장서관련 항목들을 조사하였다(〈표 6〉 참조).

한밭도서관은 대전사이버도서관을 통해 구독DB에 더하여 33종의 무료DB의 웹DB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250여종의 잡지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전자잡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최신호뿐만 아니라 과월호도 포함된다.

〈표 6〉 한밭도서관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

업무	항목	내용
현황	소장유형	542종(2016년 기준) / 신문, 잡지, 관보, 공보 등
선정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취미, 오락 등 읽을거리에서 전문적인 지식 정보 습득 및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의 각종 정기간행물 구입</li> <li>• 자료의 특성상 계속성 및 일관성 유지</li> <li>• 정기간행물 이용현황 및 선호도 설문 결과를 반영한 주제의 장서 구성</li> <li>• 정간물 구독 시 기본 1부로 하되 이용 빈도 및 보존 가치가 있는 간행물은 복본 구독</li> <li>•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고 휴간이 많은 간행물은 유사 주제의 새로운 간행물로 대체 구독하여 자료 이용의 효율성 도모</li> <li>• 이용자 요구가 있거나 휴·폐간 간행물에 대한 신규대체는 지명도와 이용률을 고려하여 선별</li> </ul>
	언어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한 다언어(아시아) 자료를 선별 구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지역자료	지역자료(대전 간행물)의 적극 수집 및 활용으로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입수	기증	한밭도서관 - 배재대학교 간 상호협력 지속사업
이용	대출	관내열람
보존 및 폐기	폐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 금년도 1.1일 기준, 1년 경과된 자료</li> <li>• 잡지: 금년도 1.1일 기준, 3년 경과된 자료</li> </ul> (단, 여성지는 2년 경과된 자료, 복본, 사보 및 회보 등은 당해연도 경과된 자료)

### 3.1.6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은 2010년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온라인에 장서 개발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2016년 1월 작성된 『무등도서관 장서관리 지침 수립 계획(안)』과 『시립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을 바탕으로 하였다. 연속간행물 장서 현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도서관별 안내\_무등도서관)자료현황에서 간행물구독목록과 신문구독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무등도서관 장서관리 지침 수립 계획(안)』에, 2015년 말 기준 구독 전자저널 75종, 웹DB 130종을 전자자료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무등도서관에서 관보와 지역신문 2종 등 영구보존으로 보존기간을 명시하여 보존한다는 점이다. 무등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 3.1.7 경기도 선경도서관

경기도 대표도서관은 2020년 건립 예정이며 현재는 수원시 선경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5년 365종에서 약간 감소하여 2016년 7월말 기준 289종의 잡지, 64종의 신문 총 353종의 연속간행물을 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2016년도 선경도서관 장서확충계획』을 근거로 한다.

<표 7>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

업무	항목	내용	
현황	장서현황	잡지 47종, 신문 17종, 전자저널, 웹DB	
선정	장서구성	• 도서관법 시행령 • 자료 유형별 구성: 이용 수요를 감안하여 구입량을 결정	
	예산	30,000,000(3개관)/무등도서관 38%	
	선정 기준	일반	• 이용자의 구독경향 및 교양,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선정 • 기 구입(구독) 간행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선정
		향토자료	지역사회 자료 보존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지역 향토자료 확보(행정간행물 등)
	선정도구	인터넷 가상서점 활용(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6개)	
입수	구입방법	연간구입계약	
	납품	매월 납품 확인 후 검수	
	기증	• 단기정보, 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자료(정부간행물 포함)는 제외함 • 잡지 제외	
이용	소장위치	• 종합자료실)간행물코너 • 자료 보존실: 정기간행물(신문 등) 제본자료	
	배가방법	• 개가제/제본자료 반개가제 • 석·박사학위 논문(청구기호 순), 일반논문(발처별 순)	
	대출	대출불가	
보존 및 폐기	제본	정기간행물(신문 등)은 제본하여 자료 보존실에 관리	
	보존기간	• 관보: 영구보존 • 신문: 1년 / 제본신문(2종: 광주일보, 무등일보) 영구보존 • 논문: 3년 • 구입간행물: 5년	
	폐기대상	보존기간이 지정된 잡지, 연보, 통계자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한 자료	

선경도서관의 경우 장서구성을 도서, 자료 특성화-분담수서, 전자도서관, 정기간행물 등 유형별로 나누어 방침을 마련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었다. 연속간행물 예산은 유형별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선정기준도 유형별로 나타났다. 신문과 잡지도 자료실별, 주제별, 이용대상별, 발행간기별 등의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선경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 3.1.8 전라남도립도서관

전라남도립도서관은 2011년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의거하여 2012년 개관하였다. 2016년 기준 구입 26종, 기증 25종으로 총 51종의 인쇄본 연속간행물을, 215종의 전자잡지를 구독하고 있다. 기증에

는 한국잡지협회에서 제공받는 우수콘텐츠 잡지가 포함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도서관>원문DB서비스를 통해 무료DB와 회원전용DB의 주제와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신문을 구독하여 명석컴터, 간행물실, 다목적강당 등 도서관의 3곳에서 22종의 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능한 신문은 과거신문 3개월 이전까지이며 기사검색도 3개월 신문까지만 가능하다.

『전라남도립도서관 장서개발지침』에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에 의거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을 장서개발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연도별, 자료류별 장서확충목표에 연속간행물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장서개발지침과 별개로 『정기간행물 구독·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표 9> 참조).

<표 8> 선경도서관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

업무	항목	내용	
현황	장서현황	잡지 289종, 신문 64종(구입/기증), 웹DB 326종	
선정	예산	22,740,000(신문/잡지/협(학)회지/추록비 구분)	
	선정 기준	신문	2015년도 구독중인 신문을 계속 구독함을 원칙으로 함
		잡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도 구독중인 신문을 계속 구독함을 원칙으로 하되</li> <li>• 수원시 관내 도서관의 정기간행물(잡지) 구독현황을 분석하여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정기간행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선정</li> <li>• 자료특화 분야, 2015 자료이용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보강되어야 할 분야를 반영함</li> </ul>
		협(학)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관련 최신 정보 습득을 위한 학술지 구독</li> <li>•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실용학문 관련 학회 중에서 학회지의 자료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학회를 가입</li> </ul>
		향토자료	향토자료와 지방행정자료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수집
입수	기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 역사 및 향토자료, 족보 등 선경도서관 특화자료 적극 수집</li> <li>• 각급 공공기관 발간자료 및 대학 연구보고서 등 발간자료</li> </ul>	
이용	소장위치	종합자료실(정기간행물실)/어린이자료실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 주제별</li> <li>• 잡지: 이용대상별/발행간기별/주제별</li> </ul>	

〈표 9〉 전라남도립도서관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

업무	항목	내용	
현황	장서현황	인쇄 51종(구입 26종, 기증 25종), 전자잡지 215종	
선정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쇄잡지: 18,000,000원</li> <li>전자잡지: 2,000,000원</li> </ul>	
	선정기준	일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토지, 지방행정지, 단체기관지, 교양잡지, 홍보지, 취미·실용지, 시국관련지 등을 적절히 선택하되 중립 및 공정성의 원칙</li> <li>교양, 자기개발, 교육, 학술연구, 건전한 여가선용 등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li> <li>이용자의 선호도 및 기 구독 간행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선정</li> <li>매년 우수콘텐츠잡지목록 등 보조도구를 활용 하여 선정</li> </ul>
		정부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보고서, 법령집, 백서, 통계자료 등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체계적으로 선택</li> </ul>
		Web-DB 전자저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성, 관리의 효율성 고려하여 구독</li> </ul>
선정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콘텐츠잡지목록</li> <li>정부간행물목록</li> </ul>		
입수	구입방법	간행물 판매 가능한 관내서점을 통한 수의계약	
	기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잡지협회 우수콘텐츠잡지</li> <li>일회성 화보류, 교양잡지, 사보, 뉴스레터 등 미등록 (향토자료, 행정자료 제외)</li> </ul>	
이용	소장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다문화/간행물자료실</li> <li>전자잡지 도입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통해 열람(모바일)</li> </ul>	
	배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기에 따라 배가</li> </ul>	
보존 및 폐기	보존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해양, 환경 관련 간행물 보존</li> <li>전라도닷컴 등 전라남도 관련 간행물 보존</li> </ul>	
	폐기방법	『전라남도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관 기간이 경과한 간행물은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 무료 배포	

### 3.2 국외 사례

#### 3.2.1 보스턴 공공도서관(Boston Public Library)

보스턴 공공도서관(Boston Public Library, 이하 BPL)은 메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위치한 공립 도서관으로 1848년 개관하여 현재 중앙관과 24개관의 분관, 지도 센터, 비즈니스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2015년 6월 기준 약 2,300만권 이상의 장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스턴 공공도서관은 현재 20,000종 이상의 잡지, 학술저

널을 구독하고 있다. 중앙관과 Copley Square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은 관내 이용만 가능하다. 분관에서도 좀 더 대중적인 성격의 100종 이하의 소규모 연속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예약하여 이용할 수는 없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분관의 연속간행물은 대체로 2년간 보관된다.

비즈니스 도서관의 경우 금융 관련 신문을 자료에 따라 1달에서 1년까지 보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외의 신문은 신문명, 언어, 간기, 대상자, 웹사이트 링크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신문

은 ProQuest를 통한 'Boston Globe', Gale을 통한 'New York Times'와 4,000종 이상의 신문을 열람할 수 있는 'PressDispaly'가 있다.

2015년 6월 기준 Digital Collection으로 구축하여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100종이며, 2013년 9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26,000건 이상의 전자잡지(digital magazines) 대출을 보이고 있다. 잡지 온라인 서비스 'Zinio'를 통해 5,000종 이상의 저명한 잡지를 최근 발행호뿐만 아니라 특정 종의 지난 권호에도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BPL의 '연구 데이터베이

스(research database)'를 통해서 학술적, 전문적인 잡지와 신문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BPL은 미국 정부간행물 연방 보존 도서관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형태의 정부간행물을 수집한다. 홈페이지 'Government Information' 메뉴에서 가이드, 검색도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BPL이 연속간행물과 관련하여 마련하고 있는 별도의 장서관리정책은 없으나 소장 자료 전반에 적용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 중 연속간행물 관리에도 적용되는 항목과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보스턴 공공도서관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

업무	항목	내용
현황	장서현황	20,000종 이상(신문, 잡지, 학술저널, 웹DB, 전자잡지, 정부간행물 등)
	이용통계	전자잡지 대출 26,000건 이상
선정	예산배분	이용자의 요구, 이용통계 분석, 장서구별성과의 관련성, 이용 가능한 자원을 기초로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요구, 기대되는 요구</li> <li>• 지역사회의 흥미, 요구와의 관련성</li> <li>• 주제의 중요성, 적시성, 영속성</li> <li>• 물리적 형태의 타당성, 적합성</li> <li>• 관점의 다양성, 대표성</li> <li>• 명확하고, 정확하고 논리적인 표현</li> <li>• 초기 문해력과의 관련성</li> <li>• 학생, 청소년의 흥미에 즉각 반응하고 학술적으로 지원하고 충분한가</li> <li>• 문학적 가치와 지적 영역에의 기여</li> <li>• 현존 컬렉션과의 관련성</li> <li>• 저자, 창작자, 발행자의 평판 또는 자격</li> <li>• 가격 대비 자료의 가치</li> <li>• 대상 독자에 대한 주제 및 스타일의 적정성</li> <li>• 인터넷, 구독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한 접근 가능성</li> </ul>
입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입하는 장서와 같은 기준을 적용</li> <li>• 일부 연속간행물의 개별호는 기준받지 않음</li> </ul>
이용	소장위치	신문의 소장위치 명시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관과 Copley Square 대출 불가</li> <li>• 분관 대출 가능/예약 불가</li> </ul>
보존 및 폐기	선별제거 (Deselection)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li> <li>•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li> <li>• 더이상 현재의 요구나 흥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li> <li>• 더이상 수집되지 않는 형태의 자료</li> </ul>
	보존	• 자료에 따른 보존기간 명시

3.2.2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San Francisco Public Library) 여 현재 27개의 분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FPL 중앙관은 130만권 이상의 장서가 있으며 제본된 연속간행물 10,000종 이상, 500,000점을 소장하고 있다. 중앙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정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

업무	항목	내용	
현황	특징	제본의 문제/보존공간의 제약/장기적 합의 필요	
	장서현황	10,000종 이상(500,000점)	
선정	선정 기준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li> <li>• SFPL에서 구독중인 인쇄/온라인 자료의 색인</li> <li>• 발행 첫 호부터 완전함</li> <li>• 지역의 흥미</li> <li>• 대중적 관심</li> <li>• 국제적 언어의 흥미</li> <li>• 많은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에게 사용되는 언어</li> <li>• 온라인으로 원문 이용 가능</li> <li>• 전문적 또는 대중 매체로부터의 검토</li> </ul>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독자의 흥미 반영</li> <li>• 단행본 장서의 보완</li> <li>• 다양한 연령과 주제 반영</li> <li>• 어린이 문학과 어린이 자료에 관한 서평을 다루는 연속간행물</li> <li>• 어린이 사서가 참고할 만한 자료</li> <li>• 교사들이 요구하는 잡지, 다문화 잡지, 역사 잡지</li> <li>• 이용가능성과 요구에 따라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어린이 연속간행물도 구독</li> </ul>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적 흥미, 다양한 흥미 반영</li> <li>• 단행본 장서의 보완</li> <li>• 청소년 음악과 대중문화에 관한 잡지</li> <li>• 다양한 언어의 청소년 잡지</li> </ul>
	희망	희망 연속간행물에 대한 의견 받음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언어의 중요한 연속간행물 수집</li> <li>• 제2언어로서의 영어(ESL), 교수용 언어(스페인어, 불어, 중국어, 유럽 및 아시아 언어)</li> </ul>	
	입수	기증	기증받지 않음
이용	소장위치	잡지&신문 센터/국제 센터/어린이자료실	
	색인	정기간행물 또는 어린이 잡지 색인 독자 가이드	
보존 및 폐기	보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FPL에서 구독중인 인쇄/온라인 자료의 색인</li> <li>• 발행 첫 호부터 완전함</li> <li>• 오래 지속되는 흥미인가 vs 단지 현재의 흥미인가</li> <li>• 온라인으로 원문 이용 가능</li> <li>• 현재 소장하는 장서와의 관련성</li> <li>• 계속 보유하고 있는 연속간행물</li> <li>• 언어 (영어 외는 대체적으로 보유하지 않음)</li> </ul>	
	보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청소년잡지: 1년</li> <li>(공간과 자료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li> </ul>	

SFPL은 장서관리정책에서 종간을 예정하지 않는 연속간행물의 특성상 전자형태의 연속간행물을 구독하거나 제본과 관련, 보존 공간의 제약 등의 단행본과는 다른 결정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연속간행물을 구독할 때는 장기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어 연속간행물은 잡지&신문 센터(Magazines & Newspapers Center)에서 그 외의 다른 언어로 기술된 것은 국제 센터(International Cente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소장하는 연속간행물의 목록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잡지&신문 센터에서는 현재 발행되거나 역사적인 잡지, 신문, 전화번호부, 샌프란시스코 명감 등 수 천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장서의 사용, 유지, 타이틀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제작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로부터 희망 연속간행물에 대한 의견을 받는 반면, 구독료나 단권 연속간행물의 기증은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SFPL에서는 연령별 연속간행물 관리지침을 별개로 서술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 잡지는 단행본 장서를 보완하고 어린이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한 다양한 연령과 주제의 자료를 제공한다. 어린이들의 흥미뿐만 아니라 어린이 문학과 어린이 자료에 관한 서평을 다루는 연속간행물, 어린이 사서가 참고할 만한 자료들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Readers Guide to Periodical Literature or Children's Magazine Index'에 색인되는 잡지들은 중앙관 어린이 자료실에 소장한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잡지들, 다문화 잡지, 또는 역사적 흥미와 관련한 잡지들은 1년간 소장한다. 공간과 물리적 상태가 양호한 과호들은 더 오래 보관할 수도 있다. 이용 가능성과 요구에 따라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

로 된 어린이 연속간행물도 구독 대상에 포함되며 대부분이 인쇄본의 형태이나 매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구독하는 연속간행물 목록은 매년 재평가한다.

청소년 연속간행물 장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흥미를 반영하고, 단행본 장서를 보완하는 것들이 선정된다. 청소년 음악과 대중문화에 관한 잡지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수집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언어의 청소년 잡지를 구독하여 샌프란시스코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다. 어린이 잡지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잡지도 매년 재평가의 과정을 거치며 잡지의 상태에 따라 1년간 소장한다.

### 3.2.3 로체스터 공공도서관(Rochester Public Library)

로체스터 공공도서관(Rochester Public Library, 이하 RPL)은 미네소타 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공립도서관으로 1865년 개관하여 2015년 9월 기준 48만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 기준 516종의 성인 및 청소년잡지를 구독하고 있으며 10,258건의 대출량을 보인다.

RPL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쇄형태의 구독 잡지 목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잡지명과 소장하는 연월차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들 잡지는 유아 잡지/학부모 잡지/저학년 잡지(Junior) 등 이용자 대상별로 분류하였다. 신문의 경우 7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으며 지역지 'Post Bulletin', 'Minnesota Digital Newspaper Hub' 웹사이트 5개 링크를 제공한다. 또한 17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Zinio'를 통한 전자잡지 열람이 가능하다. 'Magazines in Google Books', 'Minnesota History



〈표 12〉 로체스터 공공도서관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사례

업무	항목	내용	
현황	장서현황	516종(잡지, 신문, DB, 전자잡지 등)	
선정	선정 기준	정부간행물	정부간행물 보관 도서관은 아니지만 연방, 주, 지역정부의 정부간행물에 대한 이용을 가능하게 함.
		신문	다른 지역의 의견도 제공하려고 노력함.
		연속간행물	• 뉴스, 스포츠, 패션, 요리와 취미 등에 관한 다양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잡지를 구독함. • 학술적 또는 연구적 저널은 구독하지 않으나 온라인 연속간행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원문에 접근할 수 있음.
		팸플릿, 소책자	정보 전달의 목적이거나 자료 수집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
		청소년 컬렉션	•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서를 수집함. • 주로 소설, 대중적인 논픽션, 일반 잡지 등을 포함함. • 보다 높은 수준의 논픽션과 다른 매체 타이틀은 도서관의 다른 장소에서 이용 가능함.
이용	대출	• 대부분의 지난 발행호는 일반 잡지 장서를 통해 대출할 수 있음.	
폐기	제적	• 훼손, 오손, 시대에 뒤쳐진 정보, 복본,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료, 이용빈도, 지역사회의 흥미, 해당 주제 다른 자료의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	
	폐기방법	• Friends of the Library에 의해 판매되거나 재배포	

Magazine'의 웹사이트 링크도 제공된다. RPL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정책은 정부간행물, 신문, 연속간행물로 나누어 유형별 선정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컬렉션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9월 21일 개정된 RPL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정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 3.3 종합 분석

우선, 국내 지역대표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를 종합·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장 자료의 유형구분은 다양하나, 모든 도서관이 소장현황을 제공한다. 반면, 연속간행물 이용통계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2개관에 불과하였으며, 학술DB 검색 수와 다운로드 수 등 제한된 자료 이용 통계만 수집하고 있어, 연속간행물이 얼마나 많이 이용되는지, 어

떤 형태의 연속간행물이 자주 이용되는지 등 전반적인 이용통계 파악이 어렵다. 이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시행중인 연속간행물의 대출 불가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정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많은 도서관이 일반적인 연속간행물의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유형별 연속간행물의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배제기준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많지 않았다. 장서관리는 『도서관법 시행령』 또는 『한국도서관기준』을 근거로 기준을 세우고 있으나 이를 산출하여 수치로 명시한 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1개관에 불과하였다. 미추홀도서관의 정책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한 기준 726종과 현재보유자료 445종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몇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비도서와 같이 도서관 전체 장서를 고려한 예산배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입수와 관련하여 기증 연속간행물의 등록과 관련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들이 있었다. 연속간행물의 기증을 받지 않는 도서관이 있는 반면, 정부간행물, 향토자료 등은 기증을 받되 신문, 사보 등은 제한하는 도서관이 있었다. 한편, 자료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팸플릿까지 도서관 장서로 포함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장서관리 정책에 수의계약, 입찰계약 등의 구입방법과 납품과 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넷째, 이용과 관련한 내용은 장서관리 정책에 명시하기보다, 홈페이지의 이용안내를 통해 안내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많은 도서관에서 연속간행물실을 별도로 운영하였으며 별도의 자료실이 없는 경우 종합자료실 또는 일반자료실에 소장하고 있었다. 배가방법에 대해 규정한 경우, 발행처 또는 발행빈도에 따라 배가하는 등 다양하였다. 대출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도서관에서 관외대출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관내열람만이 가능하였다.

다섯째, 과반수이상의 도서관이 보존 및 폐기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보관기간은 1년부터 영구보존까지 도서관의 상황과 해당 자료의 소장가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영구보존하는 연속간행물의 사례로, 지역 관련 신문과 관보 등이 있었다. 미추홀도서관의 경우,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및 향토자료를 제본하도록 하였으나 구독간행물의 보존기간을 1년이라고 명시하여, 제본하는 향토 자료 역시 1년 경과 후 폐기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도서관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재배포, 단순 폐기 등 폐기의 방법을 정책에 기술하

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대표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정책은 개정빈도 3년인 중장기 정책부터 당해 연도 1년의 계획까지 다양한 범위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정책이 장서확충계획, 도서관구입계획, 정기간행물 수집 및 폐기계획, 자료실 이용 규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내부적으로 참고하는 지침에 불과하고 한 도서관을 제외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국외 사례의 경우, 첫째, 현황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연속간행물 장서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서의 규모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국내와 비교하였을 때 중앙관을 중심으로 상당히 방대한 양의 연속간행물 장서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의 경우 연속간행물 장서관리정책을 나열하기 이전에 연속간행물의 특성을 명시함으로써 장서관리에 있어서 단행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둘째, 선정과 관련하여 청소년 잡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지역대표도서관 장서관리정책에서는 이용자대상별 선정기준을 마련한 곳이 서울도서관 1개관인 것과 달리 국외에서는 두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 컬렉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셋째, 이용과 관련하여 국내의 지역대표도서관이 연속간행물의 관외대출을 제한한 것과 달리 국외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대체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고 있었다.

넷째, 세 곳의 공공도서관 모두 다양한 전자컬렉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속한 지역사회와 관련한 신문, 정부간행물, 웹DB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연속간행물을 소장하고 있다.

다섯째, 폐기와 관련하여 모든 도서관에서 연속간행물 장서의 보유 또는 선별제거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있었다. 국내의 지역대표도서관에서 보유기간만을 정하고 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폐기한 것과 달리 해외 사례에서는 자료자체의 가치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즉, 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 현재의 요구나 흥미를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 온라인 원문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소장중인 다른 장서와의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도서관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준 등 장서관리에 관한 정책을 공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연속간행물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보관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홈페이지에 지역과 관련한 연속간행물 웹사이트 링크, 정부간행물 웹DB 링크를 포함하는 등 소장가치가 높은 연속간행물을 디지털화하여 DB로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링크를 통해 다양한 관련 정보원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분석 대상 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정책에서 포함하는 요소들을 종합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사례 분석 대상 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정책 항목 비교

영역	구성요소	지역대표도서관									해외사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전남	전북	BPL	SFPL	RPL	
현황	장서현황	○	○	○	○	○	○	○	○	△	○	○	○	
	이용통계		○		△						○		○	
선정	구성기준	△			○		△		△					
	예산배분			△			△	○	△		○			
	선정 기준	일반	○	○	○	○	○	○		○		○	○	
		유형별	○	○	△	△			○	○		○		○
		자료실별	○											
	연령별	○									○		○	
	배제기준	○	○											
	선정주체		○		○									
	희망	○	○		○									
	선정도구				○					○	○			
언어					○									
입수	입수방법			○	○		○		○		○	○		
	납품/검수			○			○							
	기증/수증	○	○	○	○		○	○	○			○		
이용	소장위치	○	○	○	○	○	○	○	○	○	○	○		
	배기방법			○			○		○					
	대출여부		○	○	○		○				○		○	
폐기	보유기준		△		○		○		○		○	○	○	
	보존기간			○	○	○	○			○	○	○		
	폐기방법			○					○	○			○	

## 4. 경기도 지역 공공도서관 현황 조사

### 4.1 조사 대상 및 응답자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14. 12.31.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현황표』를 근거로 경기도 소재 공공도서관 217개관 중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분류된 25개관을 제외하고 192개관을 대상으로 연속간행물 종수를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연속간행물 50종 이상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총 153개 공공도서관에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31개관의 연속간행물 업무 담당자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연속간행물 담당자가 없거나 해당 업무 경력이 짧은 인력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낮은 응답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 공공도서관을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1개 시·군구 중 26개 기초자치단체이다. 중앙관이 11개관(35.5%), 분관이 20개관(64.5%)이

었다. 연속간행물 담당자의 해당 업무 경력은 3년 미만이 25명(80.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담당자의 자격은 정사서 2급을 소지자가 26명(8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응답자도 2명(6.4%)이었다.

### 4.2 선정과 입수

연속간행물 장서구성에 관한 지침이 있는 도서관은 8개관(25.8%)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내용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라는 단순한 지침부터 장서관리 전반에 관한 지침까지 다양하였다. 대부분이 장서확충계획, 선정기준 등 선정과 입수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1개관에서 선정, 입수, 보존, 폐기에 관한 지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침이 없는 경우 고려하는 점으로 희망간행물을 포함한 이용자의 요구가 16개관(5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침의 수립 유무와는 별개로 연속간행물의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의 응답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연속간행물 선정기준과 배제기준\*

내용	구분	응답수(관)	백분율(%)
선정기준	분야별 정평이 있는 자료	25	32.9
	자료의 일반적 기준	23	30.3
	이용자 수요조사	23	30.3
	ISSN 부여 자료	3	3.9
	연 2회 이상 발간되는 자료	1	1.3
	기타	1	1.3
	합계	76	100
배제기준	10면 미만의 소책자, 팸플릿	18	39.1
	대학원 이상 수준의 학술지	14	30.5
	ISSN 미부여 자료	6	13
	기타	8	17.4
	합계	46	100

\* 중복응답

기증 연속간행물 등록 지침이 있는 도서관은 7개관(22.6%)이었으며 관련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단순 비치(15개관, 48.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간행물 선정의 주체는 연속간행물 업무 담당자가 19개관(61.3%)으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자료선정위원회인 도서관은 4개관(12.9%)이 있었다. 연속간행물 구독 예산 과목은 사무관리비가 27개관(87.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응답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전체 예산에서 연속간행물 예산을 특정할 때는 도서관의 규모나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라, 연속간행물 예산 내에서 배분할 때는 주제와 종수, 단가를 고려하여 분배하였다.

연속간행물 선정도구는 이용자의 요구가 15개관(32.6%)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참고하는 선정도구가 없다고 응답한 담당자도 4명(8.7%)이 있었다. 온라인 연속간행물(전자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도서관은 1개관으로 전체 응답자의 3.2%에 불과하였다. 온라인 연속간행물을 구독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상의 어려움(35.2%), 낮은 이용률 예상(31.5%), 제반환경의 제약(24.1%), 관리의 어려움(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속간행물 선정의 어려움으로는 선정도구의 부족이 17개관(3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 지침의 부족이 15개관(28.8%),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 수용과 파악이 어려움이 14개관(26.9%)으로 나타났다.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구독하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13개관(4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역지가 10개관(32.3%), 지역사회의 특색에 맞는 간행물(다문화/농업 등) 6개관

(19.4%), 특화 주제 2개관(6.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4.3 배가와 열람

별도의 연속간행물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11개관(35.5%)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종합자료실, 연령별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에 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5〉 연속간행물 소장 위치

소장 위치	응답수(관)	백분율(%)
별도의 연속간행물 자료실	11	35.5
종합자료실	11	35.5
연령별자료실 (어린이/일반자료실)	7	22.6
디지털자료실	2	6.5
합계	31	100

연속간행물을 배가하는 분류 기준으로는 대상연령, 수록정보별, 입수방법별, 주제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분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4개관(7.5%)이 있었다.

연속간행물의 목록 수준에 대한 응답으로는 서명, 발행자, 간행빈도, 간행상태 등 기본적인 수준이 19개관(57.6%)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도서관도 5개관(15.2%)이 있었다.

연속간행물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6개관(19.4%)이 있었다.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당월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였으며, 당월 및 전월 또는 당월호만 지정하여 제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대출을 하지 않는 도서관의 이유는 중복이용의 어려움

(33.3%), 관리의 어려움(26.7%), 연속간행물의 특성(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4.4 보존 및 폐기

연속간행물을 폐기하기 위한 지침이 있는 도서관은 15개관(48.4%), 그렇지 않은 도서관은 16개관(51.6%)으로 나타났다. 신문의 경우 대부분의 도서관이 1개월부터 1년까지 보존하였다. 신문 이외의 과월호 연속간행물의 경우 15개관(48.4%)이 자료실에 배가하고 있었으며 6개관(19.4%)이 보존서고 등에 보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16〉 참조).

지난 신문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폐기(93.6%)하였으며 지난 연속간행물은 재기증(배포)하는 도서관이 16개관(51.6%)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폐기한 연속간행물을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온라인 안내 1개관, 발행사 온라인 사이트를 안내하는 1개관이 있었다.

#### 4.5 장서관리의 개선 및 요구사항

연속간행물 업무 담당자들이 지적한 연속간행물 장서관리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연속간행물 소장 공간의 부족이 7개관에서 지적되었으며, 이용자의 요구 파악 및 반영의 부족과 세부적인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지침의 부족, 예산의 부족이 각각 4개관, 다양한 자료 확보 2개관, 사서가 아닌 다른 직렬 등 인력의 부족 2개관, 기타 소수 의견으로 연속간행물 도난 등 관리의 문제와 기증 잡지의 관리, 전산화 목록 작성이 있었다.

공공도서관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간행물 관리 지침 7명, 장서보관 공간 확충과 예산 확보가 각각 5명, 인력 충원 4명, 연속간행물 추천 자료 등 선정도구 개발 2명, 연속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 이용자와의 소통, 이용자의 설문조사, 이용자의 도덕적 수준 향상, 연속간행

〈표 16〉 연속간행물의 보존기간

유형	보존기간	응답수(관)	백분율(%)
신문	6개월 이상 1년 미만	20	64.5
	30일 이상 6개월 미만	4	12.9
	1년 이상	2	6.5
	7일 미만	1	3.2
	7일 이상 14일 미만	1	3.2
	14일 이상 30일 미만	1	3.2
	2년	1	3.2
	기준 없이 보관함에 일정량이 쌓이면 폐기	1	3.2
	합계	31	100
신문 이외의 연속간행물	1년 이상 2년 미만	24	77.4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2.9
	2년 이상	2	6.5
	무응답	1	3.2
	합계	31	100

물 KOLASⅢ 입력 방식 개선, 많은 간행물 등록, 서비스 개발 등이 언급되었다.

연속간행물 장서관리에 관한 지침 또는 정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응답으로는 객관적이고 명문화 된 선정 및 배제기준, 보존과 폐기에 관한 지침, 간행물 분류 및 배가에 관한 내용,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지, 신문 등에 대한 보존 및 관리방법, 오래된 연속간행물에 대한 접근점 안내, 갑작스러운 휴간 및 폐간에 따른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담당자 가운데 미응답의 사유를 조사하였다. 그 이유로는 사서가 아닌 다른 직렬로 전문용어 및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신규 발령자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정규 인사발령으로 도서관을 옮겨 현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있어 연속간행물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장서관리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알 수 있었다. 도서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응답의 어려움도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이유로 연속간행물 장서관리에 소홀하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5.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공공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현황 분석에서 나타난 장서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연속간행물의 장서규모가 크지 않으며 도서관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 2014년 말 기준 전국 930개관 중 단 한 종의 연속간행물도 소장하지 않은 도서관은 26개관(2.8%)이었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준인 기본 50종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서관도 399개관(42.9%)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연속간행물의 장서관리 전반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설문조사 대상 31개관 중 연속간행물 장서구성에 관한 지침을 가진 도서관은 8개관(25.8%),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파주시 적성도서관 1개관이었다. 지침을 가진 경우에도 매우 일반적인 지문에 불과하여 실제 장서관리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기증되는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도 관련 지침이 없으면 담당자의 결정에 따라 단순 비치되거나 폐기되는 상황이다.

셋째, 연속간행물 장서관리가 지역사회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구독하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13개관(4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온라인 연속간행물을 구독하는 도서관은 평택시 장당도서관 1개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도서관이 인쇄 연속간행물 수집에 치중하고 있다.

넷째, 연속간행물의 접근을 위한 분류, 목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료의 대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출을 허용하는 도서관은 19.4%, 구독하는 연속간행물 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경우도 32.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무료로 접근 가능한 연속간행물을 제공한다는 도서관도 9.7%에 불과하였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연속간행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어떠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는 상당한 예산과 노력을 들여 구성된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다는 비효율의 문제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에 관한 개선 방안을 크게 운영 및 관리의 측면과 이용자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 및 관리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기준으로 삼을 만한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지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침은 경력이 적은 사서, 업무 순환으로 인해 담당하게 된 사서, 또는 사서가 아닌 담당자가 연속간행물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일관성 있는 장서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선정 업무에서 도서관의 전체 장서와 별개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속간행물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나 하나의 도서관에서 같은 봉사대상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원으로서 통일된 맥락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지침에는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배제원칙과 선정도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장서구성기준, 보존과 폐기에 관한 사항 등은 성문화하여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관 통계 수집 및 평가에 연속간행물 관련 항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연속간행물 관련 항목으로는 연속간행물 관리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준관리시스템 KOLASⅢ의 기술 개선을 통해 개별호 자료목록의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단위 도서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 시스템에서는 종별로 마크

를 편집하게 되어있어 개별호에 수록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사단위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이용자 서비스 측면에서 기증 연속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수증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속간행물 소장 증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증받는 연속간행물을 평가하여 수집하는 일은 사서의 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 차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특색에 맞는 연속간행물,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연속간행물의 구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개별 도서관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연속간행물 관외대출을 허용하여 대출로 집계되는 이용통계를 연속간행물 장서평가와 장서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출 서비스는 일부 담당자들에게서 장서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연속간행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을 확보하고 소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자관의 상황에 따라 대출이 어렵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이용통계를 산출하여 이를 장서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적인 자료분류와 목록, 온라인으로 소장중인 연속간행물 목록 제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연속간행물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6.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관리에 대한 논의는 정책에서부터 선정, 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2010년에



는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매뉴얼』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연속간행물이 가지고 있는 간행의 계속성, 서지사항의 다양성 등 단행본과는 매우 다른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장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행본에 집중되어 연속간행물의 장서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서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향상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공공도서관 통계와 연속간행물 담당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장서관리 전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직 사서들의 요구가 존재하였다.

연속간행물 장서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간행물 관리 지침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담당자들은 세부적인 장서관리 지침이 부재하여 연속간행물의 선정, 폐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역대표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도서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지역대표도서관에서 명문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장자료 현황에 대한 파악, 선정기준, 소장위치 등을 명시

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국내의 공공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장서관리 정책의 구성요소를 참고하여 자관의 관련 지침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속간행물 장서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연속간행물이라는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서의 인식과 노력이다. 이용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연속간행물에 대한 정보요구를 파악하는 것, 자관이 속한 지역사회의 특색에 맞는 연속간행물 장서를 개발하는 것, 소장가치가 높으나 판매하지 않는 연속간행물에 대해서는 수증을 요청하는 것 등은 모두 담당 사서의 역량에 따라 실현 가능한 업무가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서의 업무가 과중한 현 상황에서 개별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공신력 있는 연속간행물 선정도구를 개발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속간행물 장서관리의 실태는 현재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정보제공의 기능을 확대하고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속간행물에 관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공공도서관 장서관리매뉴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배경재, 차성중, 최재황, 이정수, 장원홍, 유지희, 2013.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개선방안 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서혜란, 차미경, 김선애, 강은영, 박정아. 2008.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실태조사 및 기본장서목록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윤희운. 2009.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정론과 역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5-22.
- 이지연, 윤명희, 안의건, 김원만, 민지연, 김성실. 2009.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이진경, 이지연. 2011. 이용자 장서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151-171.
- 이창수. 2011. 『연속간행물의 관리』. 대구: 태일사.
- 장덕현, 강은영. 2012. 부산시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인문학논총』, 30: 201-223.
- 조윤희. 2011. 공공도서관의 장서 폐기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229-245.
- 표순희. 2014.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혜택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307-329.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2013.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Kyung-jae et al. 2013. *A Study on Improvement of Public Library Book Purchase*.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Cho, Yoon-hee. 2011.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ing Method of Collections Disposal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229-245.
- Jang, Durk-hyun and Eun-yeong Kang. 2012. "Citizen Perceptions and Demands on Public Libraries in Busan." *Journal of Humanities*, 30: 201-223.
- Koran Library Association. 2013. *Standards for Korean Libraries, 2013 edi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Chang-soo. 2011. *Managing serials*. Daegu: Taeilsa.
- Lee, Jee-yeon et al.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an Management Manual*.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y Research Institute.
- Lee, Jin-kyung and Jee-yeon Lee. 2011. "A Study of Collection Development by Analyzing User's Collection-Use Behavior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151-171.
-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y Research Institute. 2010. *Collection Management Manual of*

*Public Library*.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Pyo, Soon-hee. 2014. "A study on Measuring the Benefits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307-329.

Seo, Hye-ran et al. 2008. *Survey on the management of the collection of public libraries and the list of basic collection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Yoon, Hee-yoon. 2009. "Agenda and Paradox of Collection Development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5-22.